

섬유 · 패션전 11월29일 BEXCO 개막

신발과 피혁, 섬유와 패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2007 부산 국제신발·섬유·패션전(BIFOT 2007)>이 11월29일 부산 BEXCO에서 개막된다.

2007 부산 국제신발피혁전, 2007 부산 국제섬유·패션전, 프레타 포르테 부산 2008 S/S 컬렉션 등 3개 행사를 통합한 전시회는 12월1일까지 열린다.

중국·대만·미국 등 8개국 55사와 국내 269사 등 9개국 301사가 556부스 수준으로 참여하며, 해외 42개국 500여명과 국내 1000여명 등 국내외 1500여명의 바이어들이 초청됐다.

특히, 한국-미국 FTA(자유무역협정)와 한국-EU FTA의 영향으로 미주와 EU 지역의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 49명이던 두 지역 바이어 참가자수가 2007년에는 73명으로 늘었다.

주최측인 부산시와 산업자원부는 수출구매상담회를 통해 2억4900만달러의 상담과 4700만달러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회째를 맞는 섬유·패션전에는 해외 36개사 등 국내외 136개사가 참가한다.

의류 완성품 및 원부자재, 기계류 전시 뿐만 아니라 텍스타일 디자인대전, 부산 컬렉션 및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전시회의 완성도를 높였다.

섬유패션 부문에는 부산을 연고로 한 완제품 브랜드인 그린조이, 세정, 콜핑이 신제품 발표에 나서며, 대구 섬유마케팅센터의 10사가 참여해 최첨단 섬유 신제품 소개를 통해 국내 원단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부산염색공단에서는 첨단 염색 신소재를, 진주시에서는 실크관을 마련해 다양한 소품과 인테리어 제품을 각각 선보인다.

<화학저널 2007/11/27>